D-100일 F1 대회 시동 F1 대회 D-100일을 맞아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가한 튜닝카들이 멋진 드리프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드리프트는 코너를 돌 때 뒷바퀴를 미끄러트려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고난도 운전 기술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F1 이어 AFOS·F3 자동차 대회 줄줄이

〈국제자동차연맹 공인대회〉

영암 F1 경주장 어떻게 활용되나

CJ 슈퍼레이스 등 국내외 대회 유치
콘서트 대여도…年 200일 이상 이용

영암군 삼호읍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장은 어떻게 활용될까.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 F1 대회지원본부와 한국대회 운영법인인 KAVO는 경주장(185만3000㎡) 건설에 무려 3986억원이 투입된 만큼 F1 이외에도 다양한 대회 유치를 통해 상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민체육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주장을 찾는 관중이 몰려야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개최가 확정된 대회는 F1 경기와 국제자동차연맹 공인 국제대회인 AFOS(Asian Festival Of Speed), F3 코리아 슈퍼프리(Fomula3 Korea Super Prix) 등 3가지다.

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한 인기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AFOS는 10월 22일~24일 F1 대회 기간 중 열린다. 8월 27~29일 계획된 대회는 경기장 공정 문제로 연기됐다.

AFOS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공인한 종합 모터스포츠 대회로 아시안 투어링카 시리즈(ATCS), 포뮬러 BMW 퍼시픽, GT4 아시아컵, 포르쉐 카레라컵(Porsche Carrera Cup) 등 여러 개 개별 대회를 한 자리에 모은 종합 스피드 이벤트다.

참가 경주차도 40~50대에 이르고 대회 관계자만 수 천명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로, 경기당 2만~3만명의 관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F3는 오는 11월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일정이 확정적이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규정을 따르며, F1, GP2와 함께 포뮬러 자동차경주의 주축을 이루는 종목이다. 경주차(2000㎤급 4기통 엔진) 성능을 제한해 제조기술 보다는 드라이버의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F1 대회 진출을 위한 사전 경기로 인식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레이스 대회인 CJ 헬로넷 슈퍼레이스 대회 개최도 추진중이다. 20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대회로 배기량 및 차량 규정에 따라 4가지 종목(헬로 TV·제너시스 쿠페·Super2000·넥센N9000)으로 나뉜다.

전남도 F1 지원본부와 KAVO측은 이외 친환경에너지 자동차경주대회, 전남 드래그레이스 등 각종 국내 대회를 유치해 경주장 수익성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20분의 1로 축소한 경주용 모형 자동차를 만들어 성능을 겨루는 '포뮬러원 인 스쿨(F1 in schools)' 대회의 지속적인 유치도 한 방안이다.

경주장을 경기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레저스포츠 이벤트 및 동호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드라이빙 세이프티 센터와 카트장 운영 등이 그 것이다. 국제철인 3종 경기대회와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 10만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대형 콘서트 등도 경주장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주장을 연간 200일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와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F1 대회 저변인구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李대통령-박근혜 만난다

7·28 재보선 전후…朴"총리 원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언제든지 좋다.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대표와의 조찬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실무진에서 조정해서 박 전 대표 측과 (회동과 관련한)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안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 시기에 대해 "정무수석실에서 할 것 같은데 조정해서 7.28 재보선 전이든 후든 적절하게 조율되면 같이 회동해서 서로 협력하는 일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한, 전날 취임 인사차 박근혜 전 대표와 1시간 가량 만난다고 밝히면서 "박 전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거정한 적이 없으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표에게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건의했으나 박 전 대표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 개헌 언급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개헌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당 내부 조율도 있어야 하고 야당과 대화도 있어야 해 금방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박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과 관련, "재보선 관계는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야 원하지만 박 전 대표가 일관되게 당 지도부에서 치러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선진당과 합당 등 보수대연합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며 "내가 원하는 것은 중도 보수 대통합이며, 중도보수 세력이 통합해서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정부 3년차 개각 어떻게

총리 '화합형 인사' 유력
장관 8~9명 교체될 듯

지역인사 김대식·노민기·정남준씨 등 거론

청와대 참모진과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각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 덕이 시작된다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어떠한 개각 카드를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실용적 코드에 맞게 청와대 수석 인사에서처럼 이번 개각도 세대교체와 실무형 성격이 짙은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민심은 지난주 단행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에서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에서 나름대로 지역적 안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국무총리 교체 여부**=일단 교체 가능성이 크다. 정 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한데다 집권 후반기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총리 기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단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50대 중반의 세대교체형 인물인 만큼 후임 총리는 60대 이상의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이념과 지역, 정파적 차이를 극복할 화합형 인물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후보군으로는 전북 출신의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 이석연 법제처장,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정우택 전 충북지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이며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도 깜짝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중폭 이상의 개각**=이번 개각에서는 많게는 9명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임태희 전 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이동해 공석인 상태이고 김태영 국방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이미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어 교체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로 임기 2년을 넘는 장관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유명환 외교통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이만의 환경, 장태평 농림수산식품, 전재희 보건복지, 정종환 국토해양 장관 등 7명이다.

15개 부처 장관의 절반이 넘는 9명이 사실상 교체 대상인 것이다. 다만, 유명환 외교통상 장관은 오는 11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개최 등으로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인사 발탁 여부**=현재 이명박 정부 장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장태평 농림수산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계 및 관계에서는 최소한 3명 이상의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발탁되는 것은 물론 보다 핵심적인 부처에 기용돼야 국민통합의 진정성이 확보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장관 발탁이 거론되는 지역 인사로는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문화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노민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정남준 전 행정자치부 차관은 농식품부 또는 환경부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에 따라 장관급인 국무총리 실장으로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종구 아주대 총장직무대행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승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농식품부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